한중 문학 번역과 문화번역의 정치학

The Literary Trans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Politics of Cultural Translation

임춘성 (목포대)

1. 이끄는 글

2017년은 개혁개방 39주년이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8주년인 해이다. 그리고 한중수교 25주년이란 숫자 또한 빠뜨릴 수 없다. 예년만큼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한중수교 25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모임이 줄이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민둥기 기념문고 학술세미나’의 주제도 ‘한중수교 25년을 맞아 다시 보는 한중관계의 역사’로 잡았다. 당일 발표자 가운데 한 사람은 한중 양국의 정책과 국제관계의 변화를 시야에 포함하면서, 25년의 한중관계의 특징을, 영역과 주체의 급속한 확대, 영역별 불균등한 발전, 비대칭성으로 요약하면서, 한중관계가 유례없이 급속히 발전된 반면 취약한 토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영남 2017, 23-5) 국제정세, 특히 중조 관계와 한미 관계 그리고 중미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한중간의 사드(THAAD) 갈등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작가 조정래는 일찍이 『정글만리』(2013)에서 “(한국이-인용자) 돈은 중국에서 다 벌어가면서, 방위는 중국을 견제해 대는 미국 편에 서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한국은 도자기점에서 쿵푸를 하고 있다”는 비유를, 중국 대학생들의 입을 빌어 전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최근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예견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춘성 2017, 359)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급속한 변화는 가히 천지개벽(天地開闢)이라 할 만하고 중국 관방은 ‘대국굴기’ (大國崛起)로, 한국 언론매체는 ‘슈퍼차이나’로 전유한 지금 되돌아보면,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중국과 중국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21세기 들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뀐 중국은 허름한 약장수에서 큰 손의 유커(遊客)로 다가왔고, 시진핑 집권 2기를 앞두고 세계 도처에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면, 도광양晦(韜光養晦)의 단계를 통과하고 양검(亮劍)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중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관계는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드 갈등은 한중 양국에게 서로를 새롭게 인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조금 앞서 미국화(americanization)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결코 한중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는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통해 서양화(westernization)를 선점한 일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부정적인 시선을 통해서도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다. 이상을 전제로 이 글은 한중관계의 발본(拔本)적인 성찰을 촉구하는 출발점으로 한중 간의 번역과 번역비평 그리고 번역연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한다. 나아가 한중 문학 번역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화번역의 문제의식으로 진용(金庸)의 ‘영웅문 현상’과 『루쉰전집』 번역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한중 문화 소통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2. ‘문화적 전환’ 과 ‘번역연구’ 의 흥기

‘번역연구’ (translational studies)는 1970년대의 ‘문화적 전환’ (cultural turn)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문화적 전환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 사이에서 1970년대 초반부터 문화를 당대 토론의 초점으로 만들기 시작한 운동이다. 그것은 또한 실용주의적 인식론에서 벗어나 의미에 중점을 둔다. … 스타인메츠(Steinmetz, G)는 문화적 전환이 ‘이전 사회과학의 주변 분야에서 비롯된 다양한 새로운 이론적 충격에서 비롯된 광범한 분야를 포함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포스트구조주의, 문화연구, 문학비평 그리고 언어학 분석의 다양한 형태 등이 그것이다. 이 분야들은 ‘문화 과정과 의미체계의 인과적이고 사회적인 구성적 역할’ 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때 포스트구조주의 (post-structuralism)부터 비롯된 지적 혁명은 바로 ‘문화적 전환’ 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전환’ 이라는 큰 흐름에는 ‘번역적 전환’ (translation turn) 외에도 ‘문화연구적 전환’ (cultural studies’ turn), ‘공간적 전환’ (spatial turn) 등이 포함된다.

‘번역연구’ 는 ‘translational studies’ 의 번역어다. 여기에서 ‘studies’ 는 기존 학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학문 영역을 학제간·융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나온 용어이다. 이를테면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여성연구(women’s studies)’, ‘지역연구(regional studies)’, ‘영화연구(film studies)’, ‘포스트식민연구 (postcolonial studies)’ 그리고 도시연구(urban studies) 등이 그것이다. 혹자는 ‘연구(studies)’ 라는 말을 탐탁지 않게 여기곤 ‘문화학’, 여성학, ‘지역학’, ‘영화학’, ‘도시학’ 등의 용어를 남용한다. 이는 ‘~학(~logy, ~ics)’ 의 의미를 존중하고 신형 ‘~학’ 을 수립하겠다는 취지에서 가사하지만, 기존 분과학문 체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가 출현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분과학문 체제를 뛰어넘어 학제간·융복합적으로 ‘연구’ 해야 할 영역을 설정한 의도를 무색케 하는 행위다.

번역의 역사는 길지만 ‘번역연구’ 의 역사는 길지 않다. ‘번역연구’ 는 1970년대 후반 세계무대에 등장해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그 터전을 다졌으며 1990년대에는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바스넷 2004, 11)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1959년 로만 야콥슨(Jacobson, Roman)이 번역을 ‘동일 언어 간 번역’ (intralingual translation), ‘언어 간 번역(interlingual translation)’, ‘기호 간 번역’ (intersemiotic translation)(Munday 2006, 2쪽)으로 설명한 이래, 학문으로서의 번역연구는 제임스 홈즈(Holmes James S.)가 “번역 현상 및 번역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 을 연구하는 학문을 ‘번역연구’ 라 명명했다. (Munday 2006, 3) 특히 1980년대에 번역연구는 포스트식민연구 (postcolonial studies)와 결합해 새로운 차원의 융합적 영역으로 부상했다.

3. 한중 문학번역과 포스트한류의 문제의식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문학번역은 양적인 측면에서 급속히 증가했다. 한국은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의 웅만한 작가의 대부분의 작품이 중국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까지 367종이었고 2017년까지 714종이었다. 그리고 한국 출판계의 중국 붐에 힘입어 중국의 대표작가의 대표작은 거의 모두 한국에 ‘자율적으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나는 2008년 한국문학번역원(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의 요청을 받고 중국의 한국문학 번역·출판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중 문화 교류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중 문화 교류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노정하고 있다. 한류 현상으로 인해 한국→중국의 흐름이 주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대중문화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한류 이외의 분야, 즉 교육과 번역 그리고 관련 서적의 출판 수량에서 보면 중국→한국의 흐름이 압도적이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는 외형적으로 전형적인 번역의 불평등 관계를 노정하고 있다. (林春城 2011, 26) 물론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피지배 문화와 헤게모니 문화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문화의 두터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흐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중 번역 현상에서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불균형과 불평등의 관계’가 노정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두터움과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은 별도의 지면을 기약하고 여기에서는 다음의 언급으로 대신하도록 하자. ‘만리장성으로 대변되는 그 넓은 공간은 아무리 다녀도 모두 가볼 수 없고, 25사로 표현되는 3천 년의 역사는 그 속에 빠지면 헤쳐 나오기 어려운 망망대해와 같으며, 아무리 먹어도 다 맛볼 수 없다는 음식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두터움과 규모.’

한중 문화 교류의 불균형은 문학작품 번역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 문학작품이 한국에 대량으로 번역·소개되는 것과는 달리, 한국 문학작품은 한국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한중 교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수정하기 위해, 한국문학작품이 중국 독서계와 접맥하기 위해, 작품 선정의 문제, 작품성 검증, 심사의 기준과 제도, 중개자(mediator)의 필요성(林春城, 24-5)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중국 출판 기제를 이해하고 중국의 담론 권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큰 운곽으로 볼 때 현재 중국의 출판계와 문학계 또는 평론계에서 한국문학의 자리는 미미하다. 상하이 인문사회과학 전문 서점인 지평수덴(季風書店)에는 일본문학 전용 서가는 있어도 한국문학 전용 서가는 커녕 진열도 되어있지 않았다. 이는 한국문학의 성과가 중국에 홍보가 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한국문학계의 서유럽 중심 경향의 풍토에도 원인이 있다. 한국문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와 평론가들의 중국문학 이해는 『삼국연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현대에서도 루쉰(魯迅) 등 몇몇 작가에 국한되어 있다. 중국의 학자와 평론가들의 상황도 대동소이하다. 한중 문화의 소통을 위해서는 양국의 담론 권력의 주체들의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국문학자들이 중국 학자들의 글을 직접 대면해 필요한 부분을 인용할 수 있고 중국의 평론가들에게도 한국학자들의 글이 읽히고 논의되는 지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동조든 비판이든 상호간에 읽기를 통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법이다. 자신의 것을

들이대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으로써, 상호 이해와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한중 문학교류의 지름길이고 나아가 세계문학과 소통하는 한국문학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지점에서 초국가(trans-nation), 탈영토(de-territory), 탈경계 (trans-border) 등의 문제의식이 요구된다. ‘포스트한류’는 이들 문제의식의 구체적 표현이다. 포스트한류란 ‘후기한류’와 ‘탈한류’의 중층적 의미로, 한류에 대한 기존의 문화패권주의적 발상을 기각하고, 한류가 일류와 화류를 매개하여 (동)아시아를 독자적인 단위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스트한류 개념은 (동)아시아라는 권역에서 관찰해보면 한·중·일 모두 지금까지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왔던 대중문화에 대한 반발이 한류, 일류, 화류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최원식 2007, 20-1) 이런 성찰은 자국중심주의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소통에서 자국 문화의 타국 문화 수용 맥락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이는 문화교류의 쌍방향적 특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국가·성별·인종·세대 등의 경계를 넘어 상호 소통의 희망을 내재할 때 가능한 법이다.

문학은 언어라는 장벽만 극복한다면 국가·성별·인종·세대 등의 경계를 넘어 상호 소통의 희망을 주고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장르다. 오리엔탈리즘의 혐의를 유보한다면, 우리가 세계 명작으로 읽어온 수많은 작품들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수많은 고전과 경전뿐만 아니라 제3세계 작가의 최근작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한국문학이 진정 중국문학-동아시아문학-세계문학과 소통을 희망한다면 포스트한류의 문제의식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우선 엄숙문학과 대중문화 사이에 쌓아둔 철벽을 열고, 한류를 일류 및 화류와 소통하며 형성된 문화로 파악하는 포스트한류의 문제의식을 수용해서, 한국문학이 일본문학과 중국문학을 매개하여 동아시아문학이라는 독자적인 단위를 상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아시아문학 나아가 세계문학과 소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문학을 추상적 이념으로 간주하지 않고 ‘국민문학(national literature)들의 각축·경쟁의 장’으로 보는 것에 동의한다면, 인근 국민문학들과 각축·경쟁하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국민문학’과 양방향 또는 다방향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그 소통은 바로 번역에서 시작해야 한다.

4. 포스트식민 번역연구의 이론 구조 (* 지면 제한으로 생략)

5. 문화번역의 정치학

최근 ‘번역연구’ 분야에서는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번역과 달리 ‘문화번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포스트식민 번역연구’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 또는 ‘문화 간 번역(translation between cultures)’은 ‘문화연구’, ‘포스트식민연구’, ‘번역연구’를 매개하는 접촉 지대(contact zone)에 놓여 있다.

김현미는 “문화연구에서 ‘번역’과 ‘횡단’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탈식민주의 비평과 비판 인류학이 고무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삶의 현실적인 조건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김현미 2005, 41)라고,

'문화번역'이 각광받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 1960년대 버밍햄학과 학자들로 하여금 당시 영국을 풍미하던 리비스주의에서 벗어나 노동자 대중문화에 관심을 가지도록 강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now and here)'의 현실적 조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문학/문화연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당수의 학인들은 굳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문화연구'와 '번역연구' 자체가 이미 이데올로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문화번역'을 둘러싼 정치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푸코는 일찌감치 담론 권력과 지식 권력 개념을 통해 지식과 담론이 정치권력과 무관하지 않음을 설파했다. 최근 강내희는 '문화정치경제의 문제설정'을 제시했다. 그의 문제설정은 문화·정치·경제의 삼자를 단순하게 결합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적 정치경제', '경제적 문화정치', '정치적 문화경제'(강내희 2014, 108-26)라는 세 요소의 다양한 결합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정치경제의 분리불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오랜 시간 비판적 '문화연구'에 몸담아온 인문학자가 문화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문화연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체득을 바탕으로 '문화정치경제의 문제설정'을 제시한 만큼, '문화연구'와 '번역연구'에 관심을 가진 인문학자들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문화횡단적(transcultural) 교류라는 문제의식으로 중국영화를 대상으로 민족지 이론을 '문화번역' 이론으로 보완하려는 레이 초우(Rey Chow. 周蕾)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민족지는 불평등한 '문화번역'이었다. 서유럽 관찰자가 비서유럽 관찰대상을 주관적으로 재현(초우 2004, 266)했기 때문이다. “보는 것은 권력의 한 형식이며 보여지는 것은 권력 없음의 한 형식이라고 하는”(초우, 32) 그런 시각성(visuality)을 매개로, 그녀가 제기하는 대안은 그동안 '보여지는(to-be-looked-at)' 대상이었던 토착민이 보는 주체로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녀가 “궁극적으로 논하려는 것은, 영화는 일종의 포스트모던적인 자기-서술(self-writing) 혹은 자기 민족지(auto-ethnography)이면서 또한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의 문화간 번역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11-12) 물론 이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식의 방어적 토착주의와는 다르다. 레이 초우의 '문화 간 번역(translation between cultures)'은 서양과 동양 사이의 불균형적이고 위계적인 권력관계와, '오리지널'과 '번역' 사이의 불균형적이고 위계적인 권력관계를 역전(286)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동아시아 권역 내 '문화 간 번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그녀가 '문화 간 번역'을 “전통에서 근대로, 문학에서 시각성으로, 엘리트학자문화에서 대중문화로, 토착적인 것에서 외국의 것으로, 외국의 것에서 토착적인 것으로 등등의 변화를 비롯해서 광범위한 행위 전체를 포함하는 것”(286)으로 설정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것으로 동아시아 권역 내 광범한 횡단과 소통을 포괄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문화횡단 개념은 매리 루이스 프랫의 저서 『제국의 눈—여행기와 문화횡단』을 경유해서 영어권 문화이론 내로 들어왔다.”(크라니아스커스 2001, 318) 프랫(Pratt, Mary Louise)에 따르면, 문화횡단(transculturation)은 “변경의 종속된 집단이 지배적인 문화나 식민지 본국의 문화에 의해 자신들에게 전해진 것들로부터 무언가를 창안하거나 선택하는 방식”(프랫 2015, 32-3)을 가리킨다. 이는 프랫이 “쿠바의 사회학자인 페르난도

오르티스(Ortiz, Fernando)가 아프리카계-쿠바인의 문화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1940년대에 만든 표현”(프랫, 33)을 가져와 접촉지대의 문화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접촉지대(contact zone)란, “지배와 복종, 식민주의와 노예제도 등과 같이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또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가로질러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이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가 초래한 결과 속에서 이종 문화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서로 맞붙어 싸우는 사회적 공간이다.” (32) 서유럽 제국들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된 비서유럽 지역의 거주민들은 서유럽 제국주의에 의해 “상상되고(imagined), 발명되고(invented), 구성되고(consisted), 조직되었(organized)던 것” (임춘성 2010, 282)이다. 프랫의 주된 문제의식은 “어떻게 비유럽 지역을 여행한 유럽인들이 남긴 여행 책자들이 ‘본국의(at home)’ 유럽인들을 위한 제국의 질서를 만들었고, 또 제국의 질서 속에 본국의 유럽인들을 위한 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 (프랫, 23)이었지만, 그녀가 강조하는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의 ‘이종 문화들’이 만나는 ‘사회적 공간’은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 특히 ‘접촉지대의 언어들’, 예를 들어 피진, 크레올 등의 이중언어들은 ‘문화번역’의 중요한 지점들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중간 ‘문화번역’도,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라는 부분을 잠시 괄호 치면, ‘이종 문화들이 만나는 사회적 공간’의 문화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6. ‘영웅문 현상’ 과 『루쉰전집』 번역

초국적 문화 횡단과 소통의 시대에 ‘문화번역/문화 간 번역’은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1980년대 후반 한국을 휩쓸었던 진용(金庸)의 ‘영웅문 현상’ 과 『루쉰전집』 번역을 예로 들어 고찰해보자.

1986년부터 1989년에 이르는 3년간 ‘영웅문’ 시리즈 등 모든 작품이 번역되었고 학술 연구도 적잖이 진행되었다. 21세기 들어 판권계약을 통해 ‘사조삼부곡’이 새롭게 번역되기도 했다. 하지만 ‘영웅문 현상’은 한국의 고유한, 진용 원작 이해와는 거리가 있는 문화현상이었다. 한국 독자들이 유독 ‘영웅문’에 집착하고 관련 담론들도 ‘영웅문’을 중국을 대표하는 무협소설로 간주하고 그것을 독파하면 중국 무협소설을 정복한 것으로 착각하곤 한다. ‘진용의 사조(射雕)삼부곡’을 번역한 『소설 영웅문』은 완역이 아니라 양적으로 70% 수준의 번역이었고 그 문체라든가 문화적 측면까지 평가하면 50% 이하의 조악한 번안물이다. ‘영웅문’의 번안·출판은 한국적 맥락에서 이전 단계의 무협지라는 통념을 깨뜨린 사건이었지만, 원작의 의미와 재미를 상당히 훼손시켰다. (임춘성 2008, 23) ‘영웅문’ 시리즈는 “진용(金庸) 텍스트의 두터움(thickness)을 충분히 번역하지 못하고 그 표층인 무협 층위만을 번역한 점에서 ‘문화번역’의 부정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 출판사가 주도했을 표층 번역은 당시 독서시장 요구에는 부응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우리는 중국에 대한 심화 학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완역은 독자에게 외면당했다.” (임춘성 2015, 353) 대중문화에 각인된 문화를 번역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진용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적 번역은 표층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오역되면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영웅문 키드’들이 완역된

‘사조삼부곡’에 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그 증좌다.

이와 달리, 『루선전집』의 번역은 2007년 한국의 루선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루선에 직면(直面)’하는 자세로 신중하게 시작되었다. 이들은 그 동안 몇 종의 ‘선집’은 있었지만 ‘전집’ 완역본이 없었다는 만시지탄과 함께 더딘 걸음으로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중국 런민(人民)문학출판사의 1981년판과 2005년판을 저본으로 삼아 국내외 연구 성과를 두루 참조했다. “이 과정에서 몇 년 동안 매월 한 차례 모여 번역의 난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상대방의 문체에 대한 비판과 조율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므로 원칙상으로는 문집별 역자의 책임번역이지만 내용상으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문집마다 스며들어 있다.” (한국 루선전집번역위원회 2010, 17) 번역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제1권을 출간했고 만 10년째인 금년 말 20권 완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12명으로 구성된 번역위원회 내부에 갈등이 없지 않았겠지만, 10년을 한 마음으로 번역과 토론을 진행해온 위원들의 노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완역본 출간은 한국의 루선 애호가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고, 토론 과정을 거쳐 얻은 심득(心得)은 한국의 ‘루선 연구(Luxun’s studies)’에 굳건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7. 맺는 글

동아시아 권역 내 대중문화의 횡단과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는 우선 자본주의 대중문화의 원산지인 미국을 ‘하나의 지방’으로 설정하면서 각각 ‘자기 민족지(auto-ethnography)’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 대중문화도 대부분 아프리카 흑인문화에 그 기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닌가? 이제 동아시아는 ‘원천’으로서의 ‘빌보드 차트’에 연연해하지 말고 동아시아 자체를 그리고 자국을 문제화해야 한다. 그 후 동아시아 내부에서 각자의 특수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대방 문화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 쑨거(孫歌)는 근현대 일본사상사를 고찰하면서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를 따라 일본의 근대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로부터 루선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계발되어 다시 중국의 근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쑨거 2003, 51) 쑨거가 일본에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루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획득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중국에 들어가 심층 관찰한 안목으로 한국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학인이 필요하다. ‘문화번역’은 바로 이들 학인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

‘문화번역’은 심층 번역이라 할 수 있다. 한 논자는 “문화번역가(cultural translator)는 타문화 속에서 자문화를 발견하고 드러내며 자문화 속에 타문화를 침투시키는 문화번역의 실천가이다.” (이상빈 2014, 121)라고 했다. 부연하면, 문화번역은 텍스트에 각인된 타국 문화를 자국 문화 맥락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가져오기 전 반드시 타국 문화 맥락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아시아 권역에서의 문화 횡단과 소통은 쌍방향 또는 다방향의 들고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반복의 차이가 적전(積澱)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한중 문화 교류에서 한국 중국연구자의 역할이다. 한국과 중국을 아우르려는 어설픈 몸짓보다 양자를 제대로 연결시켜주는 ‘문화 조정자(cultural

moderator)’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조정자 역할은 단순한 매개에서부터 양자의 결핍을 메워주는 역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조정자는 문화번역가라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중국연구자는 문화번역의 마인드와 방법론을 가지고 중국의 연구자들과 한국의 연구자들을 연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한국연구자의 저변 확대와 그들의 중국에서의 문화 조정자 역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과 중국 간의 번역과 번역비평 그리고 번역연구의 과제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다.

참고 문헌

- 강내희, 201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 또하나의문화.
- 로빈슨, 더글러스, 2002, 『번역과 제국—포스트식민주의 이론 해설』, 정혜옥 옮김, 동문선.
- 바스넷, 수잔, 2004, 『번역학: 이론과 실제』, 김지원·이근희 옮김, 한신문화사.
- 벤야민, 발터, 2008,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 쑤꺼, 2003,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류준필·김월희·최정옥 옮김, 창비.
- 윤성우, 2006, 「번역학과 해석학은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리코르, 폴, 윤성우·이향 옮김, 『번역론—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 현실사.
- 이명호, 2010, 「문화번역의 정치성: 이국성의 해방과 이웃되기」, 『비평과 이론』 제15권 1호, 통권 26호.
- 이상빈, 2014, 「문화번역의 텍스트적 재현과 ‘번역」, 『통번역학연구』 제18권 4호.
- 임춘성, 2008, 「중국 대중문화의 한국적 수용에 관한 초국가적 연구: 영화와 무협소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57집.
- 임춘성, 2009, 「한중 문화의 소통과 횡단에 관한 일 고찰—중국의 한국문학 번역·출판의 예」, 『외국문학』 제33호.
- 임춘성, 2010, 「동아시아인의 정체성 형성, 장애와 출구: 비판적 동아시아담론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제61호.
- 임춘성, 2015, 「동아시아론과 대중문화의 초국적 횡단」, 백영서·김명인 엮음, 『민족문화론에서 동아시아론까지』, 창비.
- 임춘성, 2017, 『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 초우, 레이, 2004, 『원시적 열정—시각, 섹슈얼리티, 민족지, 현대중국영화』, 정재서 옮김, 이산.
- 최원식, 2007, 「포스트한류시대의 입구에서」, 『플랫폼』 7호. 인천문화재단.
- 크라니어스커스, 존, 2001, 「번역과 문화횡단 작업」, 김소영·강내희 옮김, 『흔적』 1, 문화과학사.
- 프랫, 메리 루이스, 2015, 『제국의 시선—여행기와 문화횡단』, 김남혁 옮김, 서울: 현실문화.
- 한국 루쉰전집번역위원회, 2010, 「『루쉰전집』을 발간하며」, 『루쉰전집』 제1권, 그린비.
- Munday, Jeremy, 2006,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정연일·남원준 옮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林春城, 2011, 「關於韓中文化溝通與跨越的考察—以韓國文學作品在中國翻譯出版現狀為中心」, 『學術界 Academics』 第157期.
- Niranjana, Tejaswini, 1992, *Siting Translation: History, Post-Structuralism, and the Colonial Context*,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